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431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8년 1월 19일 (음력 12월 3일) 금요일

“통합 반대” 국민의당 전남도의원들 반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18일 통합선언을 한 가운데 국민의당 소속 전남도의원 의원들이 통합에 강하게 반발하며 집단탈당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18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국민의당 소속 24명의 도의원 중 상당수가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발하며 이르면 이달 안에 탈당을 결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은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와 정인화 전남도당위원장, 박준영의원 등 3명을 오는 26일 전남도의회로 초청, 향후 당의 진로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

26일 박지원 전 대표 등 초청 간담회 후 거취 결정

잔류·탈당·신당행·무소속 등 ‘각자도생’ 예상

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는 한달전인 지난해 12월 18일 바른정당과의 통합 기류에 강하게 반발하며 집단탈당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대표가 통합을 강행한데 따른 탈당 수순으로 일한다.

의원들은 당시 “명분과 실리도 없는 통

합논의를 연발안에 중단하고 당내 갈등을 종식시켜 조속히 지방선거체제로 전환, 단합된 모습을 보여줄 것”을 요구한바 있다.

전남도의회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장일 의원은 “한달 전 도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통합반대 입장을 확인하고 당대표에게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26일 간담회 이

후 탈당 등의 거취를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의당 소속 전남도의원들은 상당수가 통합 반대쪽에 서 있으며 일부 의원은 관망하고 있지만 통합당으로는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기류다.

박지원(목포) 전 대표 등 통합반대를 주도하는 지역구 의원들의 대부분 탈당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황주홍(고흥 보성 정흥 강진) 손금주(나주 화순) 의원 등 중도쪽에 있는 지역구 의원들이 관망하고 있지만 막판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이런 가운데 중도쪽으로 분류되는 주승용(여수)의원은 “더 이상 탈당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지역 의원의 공감대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A도의원은 지난해 이미 탈당. 조만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B도의원은 안철수 전 대표의 새 정치에 아직 유효하다며 잔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양당의 합당선언과 오는 26일 간담회 이후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의 탈당 등 진로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에 잔류할지, 탈당 이후 신당쪽으로 갈지, 무소속으로 남을지 등 지방선거에서 살아남기 위해 ‘각자도생’도 예상된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안철수 전 대표의 통합론이 워낙 넓히기에는 명분에 대해 일부 공감하는 의원도 있지만, 지역 정서가 통합 기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 의원들이 고민이 많은 것 같다”면서 “26일 이후 한바탕 회오리가 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뿌연 하늘과 도심

광주지역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18일 오후 남구 남구청사 옥상에서 바라본 도심. 미세먼지에 덮인 도심이 희미하게 보이고 있다.

5·18 암매장 발굴 조사 재개 ‘옛 광주교도소 집중’

기상 변수 없다면 설 연휴 전 돌입

5·18민주화운동 진실규명을 위한 암매장 발굴 작업이 옛 광주교도소에서 재개됐다.

18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옛 광주교도소 북쪽 담장 인근 1980년 5월 이후 테니스장과 주차장이 생겼던 지역에서 5·18 행방불명자 암매장 발굴 작업을 다시 시작했다.

테니스장을 만들기 위해 땅을 평평하게 다지던 과정에서 5m 가량의 흙이 매립된 곳이다.

기념재단은 굴삭기 2대를 동원해 사흘

걸쳐 흙을 걷어낼 예정이다.

흙을 모두 걷어내면 지난해 발굴 작업을 맡았던 대한문화재연구원, 교수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들과 협의를 거쳐 조사 범위와 방식 등을 결정한 뒤 암매장지 발굴에 나선다.

폭설이나 한파와 같은 기상 변수가 없다면 설 연휴 전, 발굴 작업에 들어간다. 늦어도 2월말, 3월초까지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기념재단은 이와 별도로 지금까지 확보한 제보와 증언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검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교도소를 비롯해 또 다른 암매장 예상 지

역을 좁혀나가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 발굴 작업을 벌였으나 암매장 흔적을 찾지 못했던 전남 화순 너릿재 인근을 추가 조사해 발굴 필요성이 있는 2~3곳을 특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신 2구를 따로 매장했다’, ‘공사 도중 교련복 바지를 걸치고 있는 유골 2구를 수습했다’, ‘제순환도로 공사 당시 연고 없는 유골 2기를 발견해 화장했다’ 등의 제보를 분석하는 작업도 벌이고 있다.

기념재단은 군 부대 내부 암매장 제보와 관련해서는 국방부와 군에 협조를 요청해 발굴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자료 등을 정리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까지 양심 고백이 나오지 않고 있는 5·18 당시 광주에 내려왔던 7공수와 11공수 군인들의 증언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광래 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재단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발굴 작업을 벌이겠다.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본격적인 발굴 조사가 들어갈 것”이라며 “구라도 유해를 찾는 게 중요하다. 반드시 행방불명자들을 찾아내 피해자와 가족들의 한을 풀겠다”고 말했다.

1980년 이후 공식적으로 인정된 5·18 행방불명자는 모두 82명으로, 이 중 6명만이 유전자 분석을 통해 시신을 찾았다.

기념재단은 최소 76명, 많게는 수백 명의 행방불명자 암매장장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주춘성 기자



사필귀정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여러 의혹 수사를 동시다발적으로 벌여나가는 가운데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한 옛 핵심 측근 인사들이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쏟아내고 있다. 측근들의 이같은 ‘자도생’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 전 대통령까지 각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소환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급 의혹과 관련해서는 원 전 원장, 김주성 전 국정원기조실장,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이 줄줄이 혐의를 인정하면서 검찰 수사가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임 시절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의 요구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전용해 조성한 ‘썬원’을 보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인사들의 속세를 상상해 본다.

서은홍 · 자료사진=뉴시스



광주형일자리는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우리의 정책이며 시민과 함께하는 사회혁신운동입니다.

광주형일자리란 기업의 경쟁력과 지속발전,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합니다.

광주형일자리란 사회적 합의를 통한 상생과 나눔으로 더불어 사는 광주를 만듭니다.

광주형 일자리

원·하청관계 개혁

빛그린산단에 '친환경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연계한 「**광주형일자리 선도 모델**」 구축